



Series 01-03

Occasional Paper Series

3C를 극복하자

Overcoming the Three C's

◆

Jeffrey D. Jones

2001. 6. 20

필자 약력

Jeffrey D. Jones

現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변호사

Brigham Young大 卒(1975), 법학석사(1978)
Baker & McKenzie 동경 및 시카고 사무소 변호사 역임.

현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전경련 국제협력위원회 자문위원,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시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임.

3C를 극복하자*

Jeffrey D. Jones

지난 몇 년 동안 본인은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면서 경영인 협회, 산업단체, 시민단체, 학회, 정부단체, NGO 등을 포함하여 많은 다른 그룹들을 만났다. 이러한 것은 본인에게 풍부한 경험을 갖게 했으며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관심사항들에 대해 이해하는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험, 본인과 국내외 기업들과의 교류, 그리고 현재의 한국 경제와 사회를 본인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이 'IMF' 위기에서 졸업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외환위기는 해결되었으며, 지난 3년간 정부가 이행해 온 기본적인 구조개혁은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위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단히 뭉쳐진 세 가지 위기 속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인식하기 아주 어렵지만 그 효과는 한국경제를 매우 황폐화시키고 있다. 본인은 이것을 '3C의 위기'라고 부르고 있다. 첫 번째는 '타협(compromise)의 위기'이며, 두 번째는 '순환(circulation)의 위기', 세 번째는 '자신감(confidence)의 위기'이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위기에 대해 설명하겠다.

통상적으로 타협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의 위기에 빠져있다고 한다는 것은 약간 이상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인들은 한국에 대하여 자신들의 태도와 타협해 왔다. 현재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이룩해옴으로써 새롭게 얻은 지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행동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는 만큼, 본인은 그들에게 한국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한다. 여러분들은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가,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가? 100명 중 2~3명은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고, 2~3명은 한국이 낙후되었다거나 후진국이라고 하며, 나머지는 한국이 여전히 개발과정에 있거나 신흥국가 상태라고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타협의 위기이다. 사실 한국의 교육적·경제적 실적에 근거해 보면 한국은 선진국이다. 본인은 몇 가지 통계를 지적해 보겠다.

오늘날 세계에는 대략 200~220개의 국가가 있다. 이 모든 국가들 중 한국경제는 11위이다. 이는 한국이 상위 5%에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위치는 나쁜 것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률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라는 것은 의심할 여

* 이 글은 2001년 4월 26일 개최된 특별강연회의 녹취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지가 없다. 한국인들에게는 한국의 교육제도가 경직되어 있고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속한다.

세계 제1위의 경제인 미국과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을 살펴보면, 전체 무역규모 면에서 한국이 6번째로 큰 미국의 무역상대국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미무역관계의 중요성을 비교해볼 때 한국으로 하여금 G-7 국가들 중 선두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요하고 놀라운 통계는 현재 미국과의 농산품 무역규모이다. 농업은 한 나라의 아주 훌륭한 경제개발 및 경제성숙 지표이다. 왜냐 하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자국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경향이 있고 농산품 수입을 제한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견해로 볼 때, 자국 농산물 수입시장을 개방하는 결정을 해온 국가는 선진국이거나 발전된 국가이다. 그러한 국가는 자국 농산물 수입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경제와 경제실적을 개선하고 있으며, 그 국가의 미래가 농업에 있지 않다는 결정을 해 온 것이다.

농산물 무역에 관한 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1위 및 2위 국가는 캐나다와 멕시코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소 잘못되어 있다. 그 이유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세 나라간의 상품 이동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로우며, 지리적인 위치가 미국에서 선적하기 쉽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큰 수입국은 일본이다. 일본은 인구가 한국의 3배이며 일본의 지위가 선진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금부터 나오는 수치는 깜짝 놀랄만한 것이다. 미국 농산품의 4번째 수입국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나라 한국이다. 현재 한국에서 소비되는 모든 식품의 65%가 수입품이다. 한국인들 중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싶지 않다는 결정(아마도 잠재 의식적인)을 해왔다. 단지 한국 전체 인구의 6%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된 이유는 부족한 토지를 농업생산이 아닌 다른 활동에 사용함으로써 더욱 훌륭한 경제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거의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이러한 놀라운 통계 때문에 본인은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약간 다르지만 아주 인상적인 전개와 세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자. 우리는 G-7 국가들이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견해로 볼 때, G-7은 G-8이 되어야 하며 한국이 이 배타적인 클럽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G-7 회의의 기본 목적은 통화와 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세계경제에 대해 갖는 한국의 중요성과 대부분 국가들의 모든 경제에 대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볼 때, 한국은 G-7 회의에 참석해야만 한다. 세계 전역에 미치는 한국의 영향력에 대한 흥미로운 예를 들어보자.

만약 우리가 오늘날 인류가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고부가가치의 생산품을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i) 항공기, ii) 선박, iii) 자동차, iv) 철강, 그리고 v) 반도체, 이 다섯 가지일 것이다. 이와 같이 인류가 생산해 온 가장 중요한 생산품들에 대한 한국의 세계 순위는 매우 인상적이다.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항공기 : 한국은 항공기를 생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일본도 항공기를 생산하지 않는다. G-7 국가들 중 영국, 프랑스, 미국만이 항공기를 생산한다. 그러나 한국은 항공기 기체와 날개의 주요 생산국이다.

선박 : 한국은 현재 세계 제1위의 선박 생산국이다.

자동차 : 한국은 세계 제4위 혹은 5위 규모의 자동차 생산국이며 최근에는 그 이상이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는 고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시장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철강 : 한국은 세계 제2위의 철강 생산국이며 가장 효율적이라고 논할 수 있다.

반도체 : 한국은 반도체 생산에서 1위 혹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순위를 비교해 볼 때, 한국이 세계경제에 대해 G-7 국가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G-7 클럽에 초대받지 못하고 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한국이 초대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이 그 클럽에 소속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인들은 한국인들 자신과 타협해왔으며, 한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태도와 타협해왔다. 어떤 일인지 아직도 한국인들은 한국의 위치와 경제력이 1970년대 혹은 1980년대에 한국이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구매력평가(PPP) 통계를 이용한 한국의 1인당 소득은 \$16,000이다. 만일 우리가 서울지역의 경제활동 인구로 본다면 이 수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 수치가 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결코 이러한 기준에 있지는 않다.

지난 3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국은 변혁을 거쳐왔다. 그 동안 이행되어 온 변화와 개혁으로 한국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였다. 이러한 개혁과 제도적 변화들은 한국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해 왔으며, 앞서 말한 통계가 한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할 일은 여전히 많다.

한국은 자신에 대한 태도와 세계 속의 한국의 위치에 대한 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들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개념 또는 신흥국가라는 개념까지도 스스로 지워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더 이상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한국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아직도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인들은 자신의 기준과 행동에 대해 타협하고 스스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도 타협한다. 만일 한국인들이 새롭게 발견된 한국의 선진국 위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다양한 한국 기관들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낮은 기준과 그러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한국인들 스스로 제거할 것이다.

한국의 두 번째 위기는 '순환'의 위기이다. 한국경제에서는 통화가 순환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가 비틀거리기 시작했던 작년 9월과 10월에 이러한 통화순환의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선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에 돈은 풍부하지만 그 돈이 경제에서 순환되지 않고 정부와 은행들 사이에서만 유통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현금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을 통해서 산업 쪽으로 흘러 들어가야만 한다. 이러한 기관과 시장들이 경제 속에서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은 소비자들에 대한 대출 붐(boom)을 누리고 있지만 기업대출은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외국 자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시장을 끌어올리려고 시도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KDB)과 한국 정부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자금이 산업 쪽으로 순환되지 않고서는, 그들은 궁극적으로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며 성공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인은 실제로 이러한 두 번째의 위기가 세 번째의 위기인 '자신감' 또는 신용의 위기의 결과라고 믿는다. 기본적으로 산업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다. 역사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자신의 신용기능 수행을 정부에 의존했다. 기업의 신용도는 그 기업의 정치적 연계성을 기초로 판단되어 왔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개혁들과 함께, 특히 정부에 의한 금융부문 개혁은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기업에 자금을 안전하게 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은행은 위험도가 낮다고 여겨지는 개인 소비자들에 대한 대출을 선호하고 있다. 채권시장의 투자자들은 산업의 위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려 하지 않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산업에 자신감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수치로 나타난다.

과거 10년 동안의 한국경제를 생각해본다면, 특히 1997년의 위기이후 한국은 팔목할만한 진보와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지금의 한국이 10년 전에 비해 훨씬 나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1991년 한국의 종합주가지수(KOSPI)는 700 정도였다. 현재의 종합주가지수는 약 550 선에서 주춤거리고 있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대략 25% 이상 감소한 것이다. 주식시장은 항상 현재의 조건과 실적에 근거한 가치에 따라 변동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인 장기성장에 의해서만 변동된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장실적을 비교해본다면 시장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것은 긍정적인 장기동향에 의한 것이다. 1991년의 다우존스(Dow Jones)

지수는 약 2,000이었으며 지금은 10,000을 상회한다. 이것은 같은 10년 동안에 5배 증가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왜 한국의 주식시장은 미국처럼 5배로 증가하지 못했는가? 만일 KOSPI가 1991년 수치의 5배로 되었다면, 현재의 한국의 주가지수는 550이 아니라 3,500이 되었을 것이다. KOSPI에 3,000이 추가된다면 국가 경제 및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만약 현재의 KOSPI가 3,500이라면 주식투자 여부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부유해졌는지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만일 시장이 잘 움직이고 있었다면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생산할 더 많은 자금을 구했을 것이며, 더 나은 급여와 배당금을 지급했을 것이고, 더 훌륭한 아웃소싱(outsourcing)과 서비스를 찾았을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도 새로운 TV와 자동차,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끝이 없으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1인당 소득 목표액을 \$20,000로 설정해 왔다. 만일 주식시장이 3,500이었다면 한국은 오래 전에 이 목표를 초과했을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이 실제 경제성장에 반영되도록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슬픈 일이다. 본인은 이렇듯 실적이 미흡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한국 기업들의 자신감 부족이라고 믿는다. 투자자들은 상장기업들을 믿을만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간단하게 말하면 상장기업에 신뢰감이 거의 없다.

한국에는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 한국은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세계기록인 아주 놀랄만한 두 개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세계기록은 한국이 인터넷을 수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근거이며, 한국이 왜 인터넷 관련 기술개발에 두각을 나타내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전체 주식매입 중 70%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다. 세계에서 이와 같은 인터넷 사용량을 비교할만한 나라는 없다. 이것은 주목할만하며 뚜렷한 업적이다.

그러나 두 번째 세계기록은 똑같이 주목할만하지만 덜 자랑스러우며,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 기록은 한국 투자자들의 평균 주식보유기간으로써, 현재의 기록은 6일이다. 한국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단순히 주어진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금전적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입할 때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연구하고 비교되는 산업 가치를 봐야 하며, 기업의 생산품과 개발중인 미래의 생산품, 그 기업 생산품의 시장조건, 경영진과 그들의 철학, 그리고 각종 분석 보고서들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전형적으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세부사항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풍문과 루머에 의지하는 편이다. 우리는 아주 믿을 만한 친구가 특히 그 기업이 잘 될 것이라고 하더라는 삼촌의 귀뜸을 받고 주식을 매입한다. 그러한 귀뜸과 내부정보를 기초로 재빨리 주식을 매입한 후, 그 기업이 곧 도산할 것이라고 말하는 친구를 둔 또

다른 삼촌의 나중 귀뜸을 근거로 단지 6일만에 주식을 팔아버린다. 이는 투자자가 아니라 도박꾼이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는 2,500개 이상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본인은 청중들에게 믿을 수 있는 상장기업 10개의 이름을 말해보라고 아주 가끔 물어본다. 기업 10개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우며 그 이름은 항상 거의 같은데, SK텔레콤, 포항제철, 삼성전자, 삼성생명보험, 국민은행, 주택은행, LG화학 등이다. 이 리스트에 들지 못한 기업을 사람들이 믿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2,500개의 기업 중에서 10~20개 기업의 이름을 대는 것이 쉬워야만 한다. 이것이 한국이 진실로 자신감의 위협에 빠져 있으며, 단순히 한국 산업을 신뢰하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산업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일반 투자자만이 아니다. 정부기관들도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최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원 중 한 사람으로서 잘 알려진 다국적 기업인이 세무서와 자신의 회사 세무조사에 대한 경험을 본인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이 세무조사를 “당했다(suffered)” 라고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관이 자신의 회사에 와서 그에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 금액의 세금이 부과된 이유를 회사의 장부와 기록을 근거로 제시해 달라고 세무조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세무조사관은 그에게 반드시 그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세무조사관은 그 회사의 장부기록이 정확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근거로 그 장부기록을 믿지 않는다. 수 년 간의 경험으로 세무공무원들은 납부 세액의 목표를 설정한 후 세무조사를 하는 동안에 그 금액을 교섭하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세무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터득해왔다. 이 이야기에서 세무공무원은 악역이 아니다. 그들 또한 투명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관행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월의 희생자이고, 그래서 그들은 기업의 장부를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수 년 내에 기업의 재무제표와 기타 장부기록들에 대한 신뢰성이 극적으로 개선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자신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며, 만일 우리가 그대로 한다면 KOSPI 지수는 2~3년 내에 3,000을 쉽게 넘어 설 것이다.

첫째, 기업들이 투명해져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는 반드시 기업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훈련하는 법을 터득해야 하며, 그러한 결과를 조작하거나 숨기는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된다. 보고서가 정직해지면 투자자들이나 정부, 그리고 대중들은 한국 기업들에 대해 더 큰 자신감을 갖게되어 기업가치가 극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주식가치는 장부가치를 훨씬 넘어서서 기업 자산의 실제 수익력을 반영할 것이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장기적 잠재력보다는 단기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분석가들이 기업들의 분기별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할 것이라는 점에

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기업 경영자들은 예상 수입과 비용,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경영자들의 이러한 작업은 예산 속의 향후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의 능력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증권분석가들은 이러한 예산을 이루어내는 능력에 대한 기업활동을 평가한다. CNBC 방송이나 기업 활동에 대한 보고에서,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예산에 맞았다거나 혹은 넘어섰다거나 하는 기업평가를 끊임없이 듣는다. 이러한 유형의 투명성으로 인하여, 기업은 기업공개 없이도 성취할 수 있었던 것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얻게된다. 이러한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대한 가치를 손해보고 있다.

둘째, 기업, 경영자, 그리고 근로자들이 법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기업은 더욱 더 투명해질 수 있다. 기업이 기업활동에 대한 법과 규정을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기본적인 책임은 오직 기업 책임자들에게 있다. 기업이 정확하고 공정한 재무제표를 만들고, 기업활동이 법과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위기와 기대감을 기업 내에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기업의 책임자뿐이다. 만일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기업이 회계처리와 기타 기록유지에 있어서 투명해질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 그러므로 한국 산업의 지도자들은 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발전시키고 이러한 것이 기업의 각 근로자들 사이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기업 지도자들만이 질 수 있다.

투명성과 법규준수는 각 개인이 전력을 다해 노력해야 하며 질서를 세우는 것을 배우는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는 정부와 아무 관계가 없고 개인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따라서 주주들은 투명성과 준법성이 있는 기업 책임자를 선택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개선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재벌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거대기업들이 더 이상 단순히 가족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업들은 투명성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전문경영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SK텔레콤, 포항제철, 삼성전자 등이다. 가족 위주의 소유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렇듯 크게 개혁된 재벌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중소기업들도 전문경영인을 고용하거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며, 그래서 투명해지고 합법적으로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법률제도를 적절하게 시행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한국의 법률제도는 본질적으로 선진국의 제도와 같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의 근본적인 차이는 법의 집행에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항상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 오던 나라가 아니다. 미국이 법률제도를 포함하여 더욱 체계적인 법 집행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29년의 대공황 이후부터이며, 그 전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알 카포네(Al Capone)와 같은 유명한 범죄조직이 생겨났던 1920년대의 미국을 사람들은 거의 법이 없는 나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후 70년 동안 미국은 본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집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인들이 정직해지는 습관을 기르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인들은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세금을 낸다. 기업 경영자들은 감옥에 가는 것

이 두렵기 때문에 기업의 장부기록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에서 감옥에 간다는 것은 법을 어기도록 하고 있는 기업 책임자에게서 몇 달 동안 휴가를 얻은 것으로 여기는 한국의 관행과는 다르다. 미국의 기업 책임자들은 아주 오랜 기간동안 감옥에서 보내야 석방된다.

한국에는 문화적·역사적으로 조성된 특별한 환경이 있어서 때로는 법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 중 하나가 법을 제정함으로써 이상향을 만들려고 하는 이상한 습관이다. 정부부처들은 비현실적인 법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주 충분히 있는 것이다. 가끔 너무 이상적인 법률을 만든 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되어 구속대상이 되는 불운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동정심을 느낀다. 이러한 동정 요인 때문에 사람들을 일찍 석방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의 법 집행 노력은 아주 드물게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보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이 이상향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의 한가지 사례는 근로기준법에서 나타난다. 이 법은 원래 1953년에 제정되었다. 1953년의 한국에는 이러한 기준을 모두 지키고 이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이익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은 단 한군데도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관행이 점점 생겨났으며, 근로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노사간에 불신풍조가 생김으로써 기업들이 정치적 공격이나 위협에 취약해졌는지도 모른다. 그때 그때의 경제상황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법이 마련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사회에서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법을 만들기보다는, 이 시점에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기준을 어겼을 때에는 감옥으로 보내는 법을 만든다면 우리는 훨씬 좋아진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한국 사회가 법에 의해 운영되고 더욱 투명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알게 될 것이다. 싱가포르의 법률적 환경에 의해 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이룩해낸 유교 기반 국가의 한 예이다.

만일 i) 정부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법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집행하고, ii) 법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이루어낼 기업책임자를 주주들이 선택하고 선택된 책임자들이 그대로 이행한다면, 한국은 불과 몇 년 내에 투명한 사회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은 굳게 약속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4~5배의 요인에 의해 한국 주식시장의 가치는 증가할 것이며,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국가재정도 몇 배나 증가하게 될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은 아마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 성공할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은 한국인들의 훌륭한 지적 능력, 배우고자 하는 욕구,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야망, 사회자본 뿐만 아니라 금융자본을 달성하고자 하는 포부, 그리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능력 속에 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부유해질 수 있다.

질 의 · 용 답

(질 문) 귀하는 한국의 법률과 기업 회계장부에 관한 방식을 적절하게 손질하여 고치면 주식시장이 2년 내에 3,500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변) 주식시장이 7배로 증가하여 3,500까지 될 가능성은 그리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18개월 내에 2,000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투명성이 개선되지 않은 지금도 내년에 1,200~1,300을 달성할 수 있을 터인데, 더구나 투명성 확보가 크게 개선되면 더욱 잘될 것이다. 최근에 두 곳의 인터넷 기업이 허위 재무제표 작성으로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규칙에 위반될 때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의 규칙으로서 집행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재무제표 등에 관한 새로운 회계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새로운 기준은 금년이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은 18개월 내지 2년 이내에 2,000까지 될 가능성이 실제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본인은 분명히 한국에서 주식을 매입할 것이다.

(질 문) 과거에 귀하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지해 왔다. 귀하는 향후 10년 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는가?

(답 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향후 10년 이내에 꼭 실현된다고 본다.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상황조사를 위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일행이 이번 주에 한국에 왔으며, 그들은 상원 재무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지금 인선 작업중이며, 부시 대통령은 곧바로 자유무역협정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또한 이번 주 퀘벡에서 미주대륙 정상회의가 개최중인데 이번 회의에서 부시 행정부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지지뿐 아니라 NAFTA를 광범위하게 확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할 유일한 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이 자극을 받을 것이고, 중국도 예민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역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과 미국 경제에 유익하다고 확신하며, 현재 검토중인 칠레와의 협정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한국 국민들에게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OVERCOMING THE THREE C'S*

Jeffrey D. Jones

During the past year I have traveled about Korea and met with many different groups and associations, including managerial associations, industrial groups, civic groups, academic associations, government associations, NGO's, etc. This has been a richly rewarding experience and has given me a unique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concerns of many people throughout various regions of the country. Based upon these experiences, my interaction with both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and my observations of the Korean economy and society today, it is clear that Korea has graduated from the "IMF" crisis. The foreign exchange crisis has been resolved and the basic structural reform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over the past three years will ensure that another similar crisis cannot occur in Korea.

We are, however, deep in the clutches of three crises much more difficult to recognize, the effects of which are devastating to our economy. I am calling this the "Crisis of the 3 C's." The first is the crisis of *Compromise*, the second is a crisis of *Circulation* and the third is a crisis of *Confidence*. Let me explain.

It is a bit odd to say that we are in a crisis of compromise as compromise is usually a good thing. Unfortunately, in Korea today we have compromised our attitudes about Korea. Many of us today do not recognize the newly attained status that Korea has achieved in the world and as a result, we are willing to accept a much lower standard of behavior than we are capable of performing.

As I meet with the various groups I always ask how they feel about Korea. Do you think of Korea as an advanced country, a developing country or an under developed country? Out of 100 people, 2 or 3 will respond that Korea is an advanced country, 2 or 3 will respond that Korea is a backward or underdeveloped nation and the remainder see Korea as still in the developmental stages or as an emerging nation. This is our crisis of compromise. In fact, based upon Korea's educational and economic performance, Korea is

* A transcription of the presentation at th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on April 26, 2001.

an advanced nation. I point out a few statistics.

There are approximately 200 to 220 nations in the world today. The economy of Korea is ranked 11th among all these nations. That puts us in the top 5% and that is not a bad place to be. Korea has the highest literacy rates in the world. We may have a lot of complaints about the severity and lack of flexibility in the education system in Korea, but the fact is that Korea's population includes some of the best-educated people in the world.

If we look at the world's number one economy, the United States, and its trading partners, we find that in overall trade Korea is the 6th largest trading partner with the United States. That puts Korea ahead of many of the G-7 nations when comparing the importance of the trading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 much more important and surprising statistic however is the current state of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with the United States. Agriculture is a very good indicator of a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maturity of its economy because of the importance most countries place on protecting agricultural markets. Almost all nations in the world tend to establish policies of protecting their farmers and attempt to limit the import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my view, therefore, a nation that has made the decision to open its agricultural market to imports is an advanced or developed nation. Such a nation has made the decision that by opening their agricultural market, they are improving the economy and efficiency of economic performance and that their future is not in agriculture.

Turning to the U.S. statistics on agricultural trade, the number 1 and number 2 importers of agricultural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are Canada and Mexico. This is somewhat misleading, however, as Canada and Mexico have concluded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making the movement of goods among those three nations free of any restrictions and their geographical location makes it easy to ship from the U.S. Following Canada and Mexico, we see two very interesting and important statistics.

The third largest importer is Japan. Japan has a population three times the size of Korea and there is no question about the status of Japan as an advanced nation. Now comes the astonishing number. The fourth largest importer of agricultural products from United States is a country we know well: Korea. Today, of all the food consumed by Korea, 65% is imported. Most of us have made the decision, perhaps a subconscious decision, that we do

not want to be involved in agriculture. Only 6% of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is involved in agriculture and the number is rapidly decreasing every year. The reason we have made this decision is that we have decided that we can achieve greater economic value by using our scarce land for activities other than agricultural production. This is an amazing statistic to which few of us give any attention, but one which screams to me that Korea is an advanced nation.

Lets take a look at some other very impressive developments and Korea's standing in the world. We accept the fact that the club of the G-7 nations represents the most advanced countries in the world. In my view, however, the G-7 should be the G-8 with Korea being given membership in this exclusive club.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G-7 meeting is to basically to establish monetary and industrial policies and seek to implement these policies throughout the world. Given Korea's importance to the world economy and the impact that Korea has on the economies of most nations, Korea clearly deserves a seat at the G-7. Let me give you an interesting example of Korea's influence around the world.

If we think of the most important and highest value-added products that mankind is capable of producing today, these five products would probably be i) airplanes, ii) ships, iii) automobiles, iv) steel and v) semiconductors. Korea's world ranking in these most important products that mankind has learned to produce is very impressive. That ranking is as follows:

Airplanes: Korea does not produce airplanes, but neither does Italy, Germany, Canada or Japan. Of the G-7, only the U.K., France and the U.S.A. produce airplanes. Korea is, however, a major producer of airframes and wings.

Ships: Korea is the number 1 producer of ships in the world today.

Automobiles: Korea is the 4th or 5th largest producer of automobiles and more recently, Korea has captured more than 5% of the U.S. market given the high quality and low price of its current production.

Steel: Korea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producer of steel and arguably the most efficient.

Semiconductors: Korea ranks either number 1 or 2 in the production of semiconductors.

In comparing Korea's ranking, one can only reach the conclusion that Korea has more influence on the world's economy than many of the G-7 nations. And yet, Korea is not invited to the club. In my view, one of the reasons we are not invited is because we do not accept that we belong. We have compromised ourselves and our attitudes into thinking that we are still a developing nation. We still somehow think of ourselves as a nation with the same standing and economic force as we had in the 70's or 80's.

Today, Korea's per capita income utilizing the purchasing parity power statistics (PPP) is \$16,000. If we were to take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is number would be much greater. While this number is still lower than the average among OECD member countries, we are by no means an under developed or developing nation at this standard.

During the past three years,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Kim, we have gone through a revolution in Korea. The changes and reforms that have been implemented have vaulted Korea to the status of an advanced nation. These reforms and systematic changes have ensured that Korea will be able to compete with the world and the statistics above prove to us that we are doing so. There is still much to do.

We need to reform attitudes about ourselves and our standing in the world. We need to go through a mind change and rid ourselves of the concept of Korea as a developing or even emerging nation. We are no longer the country we were in the 80's and 90's, but we still think of ourselves this way and as a result we compromise our standards of behavior and what we are willing to accept from ourselves. This is our crisis of compromise. If we can accept our newly found status as an advanced nation, we will rid ourselves of the temptation to accept lower standards of behavior in how we conduct our various institutions.

Our second crisis is that of *circulation*. Money is not circulating in our economy and we began to first see the negative impact of this lack of circulation in September and October of last year when the economy began to stumble. There is plenty of money in Korea but it is not circulating in the economy, rather it is flowing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banks. In order for our economy to be healthy, cash must flow into industry through the banks, insurance companies, the stock markets, the bond markets, etc. These institutions and markets are not fulfilling their intended role in the economy.

Banks are enjoying a boom in lending to consumers, but they have chosen not to lend to companies. KDB and the Korean government faced significant criticism from abroad recently for trying to pump the bond market which was not functioning. Without this circulation of money to industry, they will ultimately choke and success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I believe this second crisis is actually the result of the third crisis which is the crisis of confidence or credibility. There is basically very little trust of industry. Historically, financial institutions relied on the government to perform their credit function. Companies were viewed as credible based upon the nature of their political connections. With the reforms instituted these past few years, particularly the reform of the financial sector by the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w required to judge for themselves whether they can safely lend money to a company. As a result, banks prefer to lend to individual consumers who they believe to be a better risk. Investors in the bond markets are unwilling to assume the risks of industry and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are not placing confidence in industry. The numbers speak for themselves.

If we think of the Korean economy over the past ten years, we have made remarkable strides and developed tremendously, particularly since the crisis of 1997. There can be no debate that we are much better off today than we were ten years ago. And yet, the stock market tells us a different story. In 1991, the KOSPI was around 700. Today it lingers at approximately 550, a 25% decline over that ten-year period. The stock market will always experience swings in value depending upon current conditions and performance, but over time there should be positive long-term growth. If we compare the market performance in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we see how there can be swings in the market, but positive long-term trends. In 1991, the Dow Jones was around 2000 and today it is over 10,000. This represents a five-fold increase in this same ten-year period.

Why is it that we have not achieved a five-fold increase like the United States? If the KOSPI was five times the 1991 figure, the index would be at 3500 today rather than 550. An additional 3000 points on the KOSPI would have a tremendous impact on the economy and the wealth of the nation. If the KOSPI today were 3500, can you imagine how wealthy we all would be irrespective of whether we had invested in stock? If the market was performing that well, companies would have more money to develop new technologies and products, they would be able to pay better salaries and dividends, they would be looking

for greater outsourcing and services, investors would be looking to make their lives better by buying more TV's, cars and new houses. The positive impacts are endless and the result is that we would all be so much better off.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our per capita income goal at \$20,000. If the stock market was at 3500 we would have surpassed this long ago.

It is very sad that we have not had growth in the stock market to actually reflect the growth in the economy. I believe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this lack of performance is the lack of confidence in Korean companies. Investors do not give credibility to publicly listed companies. Simply put, there is very little trust.

There is a very interesting phenomenon in Korea and it relates to the way in which we buy stock. Korea has established two very remarkable records in the stock market world records in fact. This first world record is evidence of the degree to which Korea has embraced the Internet and helps to explain why Korea is on the leading edge of developing Internet related technologies. Of all stock purchases in Korea, 70% of such purchases are made over the Internet. There is no other nation in the world that can match this volume of Internet usage. This is a remarkable and outstanding achievement.

The second world record, however, while equally remarkable is something to be less proud of and serves as clear evidence of the lack of confidence placed by investors in Korean enterprises. This record is the average holding period of a share by Korean investors which today stands at 6 days. The Korean investor is simply not willing to risk money for longer periods of time given the lack of confidence in the market.

When an investor buys stock, he should study the balance sheets of the company, look at comparable industry values, review the products of the company, future products under development, market conditions for the company's products, management and their philosophy and review any analysts reports. Typically, however, investors pay no attention to such details and rather they rely on hearsay and rumors in making investment decisions. Typically, we purchase a stock based upon a tip received from an uncle who has a friend, a very credible friend, who has told the investor that a particular company will do well. Based on such a tip or inside information, we quickly buy the shares only to sell them six days later based upon a subsequent tip from another uncle whose friend has stated that the company will soon fail. We are not investors, but gamblers.

On the Korean stock market today there are over 2500 listed companies. I often ask my audiences to name ten listed companies that they can trust. It is very difficult for them to name ten companies and the list is almost always the same: SK Telecom, POSCO, Samsung Electronics, Samsung Life Insurance, Kookmin Bank, Housing & Commercial Bank and LG Chemical. Once beyond this list, it gets very difficult for people to think of reliable companies. Out of 2500 companies, it should be easy to name of 10 to 20 companies. Again, I believe this is evidence that we truly are in a crisis of confidence; we simply don't trust Korean industry.

It is not just the investing public who don't trust industry. There is a general lack of confidence in companies by government agencies as well. Recently one of the members of AMCHAM, a well-respected multinational, related to me his experience with the tax office and the audit of his company. He stated that he had "suffered" a tax audit. He indicated that the auditors came into his company and told him to pay a stated amount of tax. He protested to the auditors requesting that they show him based upon his books and records why such a tax was owed. The auditors stated that he should just pay the tax. In essence, the auditors did not rely on the records of the company based upon the underlying assumption that the records are not accurate. After years of experience, the tax officials have learned to conduct tax audits by establishing an objective on the amount of tax they believe should be paid and then seeking ways in which to negotiate that amount during the audit. The tax officials are not the villains in this story. They also are the victims of years of abuse from the practice of not maintaining transparent records and therefore not being able to rely on the books of the company. This practice is improving rapidly and in the next few years we can expect to see dramatic improvements in the reliabilit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other records of companies.

There are three very simple ways in which we can overcome this crisis of confidence. It is so very simple and if we do this, within two to three years, the KOSPI index will easily surpass the 3000 mark.

First, companies must become transparent. This is an absolute must. We must learn to be disciplined in accurate reporting of the results of the companies and not seek to manipulate or hide those results. By being honest in our reporting, investors, government and the public will gain greater confidence in our companies and we will see the values of these companies increase dramatically so that stock prices will greatly exceed book values

and reflect the real earning power of a company's assets.

One of the criticisms of U.S. companies has been their tendency to focus on short-term results rather than thinking about the long term potential. This of course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analysts will review and report on the quarterly results of these companies. Every manager of a company has to create a budget of his expected income and expenses and therefore profits. This manager's performance is based upon his ability to achieve the targets set forth in those budgets and the stock analysts rate the performance of companies on their ability to achieve these budgets. On CNBC or in any report on company performance, you hear constantly the evaluation of a company based on whether they meet or beat the expectations of the "street." Because of this type of transparency, companies are given much higher values than they could achieve without such openness. We are losing tremendous value because of this lack of transparency.

Secondly, a company can only become more transparent if that company and its managers and employees are keeping the law. The basic responsibility of ensuring that a company is in compli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its activities rests solely on the shoulders of the CEO. Only the CEO of the company can create the atmosphere and expectations within a company that that company will produce accurate and fair financial statements and that the activities of the company will be consistent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f a company chooses not to follow the law, there is absolutely no way that company can be transparent in its accounting practices and other record keeping. It is imperative therefore that the leadership of industry in Korea develops an attitude of respect for the law and instills this within each employee of the company. The failings of a company in this regard can only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leadership of the company.

Transparency and legal compliance are issues that each individual must struggle with. These are issue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government and must be resolved by individuals. It is imperative therefore that shareholders choose CEOs who are committed to transparency and legal compliance. By doing so, the shareholders will ensure that they will improve the value of their holdings. The chaebol system has essentially changed and these large companies are generally no longer run simply for the benefit of family owners. These companies are becoming models of transparency and they are being run by professional managers, e.g., SK Telecom, POSCO, Samsung Electronics, etc. The family-owned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must learn from the examples of these large

reformed chaebol. They too must hire professional managers or learn to operate the companies for the benefit of all shareholders which demands therefore that they be transparent and legally compliant.

Finally, government must learn to regularly and systematically enforce the legal system that is in place. Korea's legal system is essentially that of an advanced nation.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is in the enforcement of the laws. Historically, the United States has not always been a country that enforced its legal system. It was not until after the great depression in 1929 that the U.S. began a more systematic enforcement of the law, including the laws. One may recall the fairly lawless stat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1920's that fostered such famous gangsters as Al Capone. Thereafter and essentially for the next 70 years, the U.S. has very vigorously enforced the laws governing the companies and this has resulted in the habit of Americans becoming honest. Americans pay their taxes because they fear going to jail. Business managers create transparent and honest records of their companies because they fear going to jail. Going to jail in the United States is not like the practice in Korea of granting a few months vacation to executives who are caught violating the law. Executives in the U.S. spend many years in their cells before they are set fre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Korea brought about by the culture and history of Korea that sometimes make enforcement a difficult issue. One such circumstance is the unusual habit of seeking to create a Utopia through the passage of law. There is a tendency in the government ministries to create laws which are not realistic, but which are very well intended to establish a higher standard of behavior that we believe would be ideal. As a result of creating laws that are often too idealistic, we create sympathy for those who are unfortunate to be found in violation of law and subject to arrest. Because of this sympathy factor, we tend to let people out of jail early and our enforcement efforts are sporadic and often based upon political revenge rather than commitment to creating a transparent and predictable society.

An example of our desire to create a Utopia can be found in the Labor Standards Act. This act was originally passed in 1953. I would dare say that there was not a single company in Korea in 1953 that was capable of maintaining all of the standards and paying all of the benefits to employees as required by that law. As a result, a practice developed that was outside the scope of the law which may companies vulnerable to either political attack

or blackmail by disgruntled employees and created an atmosphere of mistrus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We would have been much better off with a law that provided more realistic standards that matched the economic realities of the time. Rather than creating laws which create a goal that we hope to achieve as a society, we are much better off with laws that ban behavior that we can not tolerate at this moment and then putting people in jail when they violate those standards. By doing so, we will soon find that Korean society will become a society that plays by the rules and is much more transparent. Singapore is an example of a Confucian based society that has achieved transparency by creating a rule by law environment.

I can make an absolute promise that if i) government will create laws with realistic standards that we can follow and then they strictly enforce those laws and ii) shareholders choose CEOs who are committed to keeping the law and creating transparency and those CEOs perform as expected, we can create a transparent society within a matter of just a few years. By so doing, we will boost the value of the stock market by a factor of four or five times and the overall value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refore the wealth of the nation will increase greatly.

I know this is possible. Korea has the ability and potential for success more than perhaps any other nation. This potential lies in the great intellectual power of Koreans, the desire to learn, the ambition to get ahead and achieve financial as well as social capital and the ability to work very, very hard. Together we can achieve this great potential and in the process become wealthy.

Question & Answer

Q You said if Korean laws and the way Korean companies treat their books are properly handled and rectified, the stock-market can reach 3500 in 2 years. How do you come to that estimation?

A The possibility of our being able to achieve a 3500 level in the stock-market, a seven-fold increase, is not terribly realistic, but if we establish transparency in our financial statements and create credibility, we could reach 2000 in 18 months without any

problem. However, great improvements towards establishing transparency are going on. Of course, new accounting standards have now been created in terms of financial statements, etc. So, as those new standards are implemented and enforced from this year onwards, there is a real possibility that we could be at 2000 within 18 months to 2 years. With this in mind, in the long-term, I would definitely buy stock in Korea.

Q In the past you and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have advocated a US-ROK free trade agreement. Do you think an FTA with the US is realistic within the next 10 years?

A I would say an FTA with Korea is very realistic in less than 10 years. In fact, this week there is a team from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n Korea investigating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an FTA could be concluded. They will be making a report to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he Bush administration is just now putting people in place and very soon President Bush will come out strongly for FTAs. The Summit of the Americas is going on in Quebec this week also and at that summit the Bush administration is calling for a huge expansion of NAFTA as well as supporting FTAs. This is the only way to go. Once there is an FTA with Korea, it will spur things in Japan, it will certainly make China nervous, which it should, and we will see great improvements in the trading relationships here. We are very confident that an FTA will be good for the economies of the US and Korea and I would encourage people in Korea to think very positively about the Chile agreement that is now under consideration, because that will be a great momentum towards an agreement with the US.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 법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우선 초청
연구원 주최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무료 제공
법인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 개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초청
행사 참가비 할인
연구원이 발간하는 일부 간행물 무료 제공
-
- 후원회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 회원 가입 문의
551-3334~7(전화) 551-3339(팩스)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
-



세계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

E-mail : igenet@igenet.com

(Website) <http://www.igenet.com>